

'99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盛了

미국·구라파·CIS 등 국내외한민족과학기술자 3천6백여명 참가



▲ 7월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99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개회식

지구촌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한마당 큰잔치인 '99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7월6일부터 7월16일까지 11일간의 공식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 과학기술자 2백여명과 국내과학기술자 3천4백여명이 참가하여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기술정보교환을 통해 우리민족의 과학수준과 기술저력을 국내외에 널리 과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캐나다에서 96명이 참가한 것을 위시하여 일본에서 50명, 독일·프랑스·영국에서 55명, 중국·독립국가연합(CIS)·호주 등에서

56명이 참가했다.

최신 연구논문 2백59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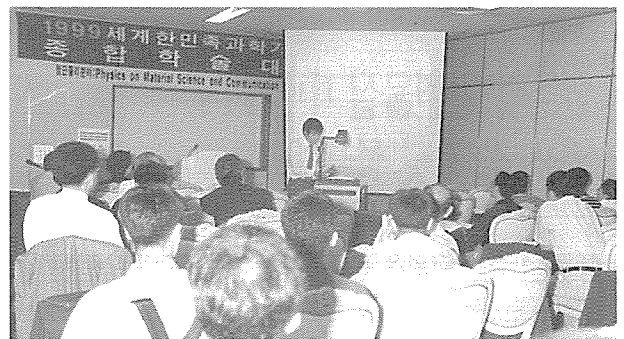
이번 한민족 학술제전은 7월6일 국외참가자들의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학술발표에 들어가 8일까지 3일간 △ 수학·통계 △ 물리 △ 화학·생물·금속재료를 포함한 환경재료과학 △ 정보통신 △ 기계·항공우주 △ 토목·건축 △ 농학·식품영양학 △ 의학·치의학 등 8개분과, 12개분야에서 총 2백59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과별로 지명초청된 해외교포과학기술자들의 특별강연(10편)과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방안과 전망」을 주제로한 특별포럼이 마련돼 8편의 논문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식에 과학기술계인사 다수 참석

한편 7월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金炳洙과총회장을 비롯 趙健鎬과기부차관, 閔寬植과총명예회장, 李祥羲국회의원, 趙完圭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사장 등 3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은 과총회장의 개회사, 과학기술부장관의 격려사에 이어 재외과학대표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회식에서 과총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전 세계에 조국의 명예를 드높여온 해외 동포 과학기술자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조국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치하드린다”고 말하고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



▲ 3일간 실시된 학술대회에선 8개분과, 12개분야에서 2백59편의 최신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첨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趙健鎬과학기술부차관은 격려사에서 "지식혁명과 세계화가 진전되는 21세기에는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이 새로운 개척의 핵심과제"라고 전제하고 "정부는 해외동포 과학기술인 여러분을 위해 국책연구사업에 참여를 확대하고 「한인과학기술자대회」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히고 "해외동포과학기술인 여러분께 조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리셉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해외과학인력 유치 상담도

또한 이번 대회기간동안 「재외과학기술자 유치센터」가 설치돼 해외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유치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이 유치센터에는 현대전자, 광주과

학기술원, 연구개발정보센터, 애그리브랜드프리나코리아 등이 참여해 관련분야의 교포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공동연구프로젝트 추진을 위

한 상담을 벌였다.

한편 서정옥 과학기술부장관과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각각 대회참석자들과의 만찬 및 환영리셉션을 통하여 학술회의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밖에도 해외동포과학기술자들은 1박2일에 걸쳐 연구·교육기관견학 및 산업시찰에 참여했으며 동반가족을 위한 가족문화관광도 함께 진행되었다.

세계韓民族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개최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구축협의, 공동선언문채택도

전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의 협의체인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는 7월9일 한국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金炳洙과총회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에 金孝根과총부회장·韓弘澤재미과협회장·金柄魯재독과협회장·高基秀재일과협회장·尹宗柱재중과협회장을, 간사장에 李傑三과총사무총장 그리고 감사에 崔אל렉세이 재 CIS과련회장을 각각 선임하는 등 임원진을 개설했다.

金炳洙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공동협의회에서는 재오스트리아과협의 회원가입심의,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

크구축협의,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Brain Pool)제도활성화방안이 집

중 논의됐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각 재외과협별 활동보고에 이어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조국의 장래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3개항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

세계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과학기술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들은 1999년 7월 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99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총회"에서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진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들은 과학기술진흥이 모국발전의 핵심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과학기술정보교환과 연구협력 그리고 첨단기술자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들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즈음하여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고급과학기술두뇌교류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국내외과학기술인력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구축"에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들은 모국의 평화통일과 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북한이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에 동참할 것과 남북한과학기술협력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한다.

1999년 7월 9일

'99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참가자일동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 종합성적 1위



▲ 金大中대통령 축전 전달식에서李大云 대한화학회장 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31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는 참가사상 첫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과학분야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했다. 한국국제과학올림피아드위원회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50개국 194명의 각국 대표학생이 참가하여 7월 6일과 8일의 양일간에 치른 실험 및 이론시험결과 한국대표단은 吳成煥군(서울 과학고3)이 개인성적 6위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금상 3명, 은상 1명으로 참가학생 전원이 입상을 하여 종합성적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화학에 관심있는 전세계 학생들의 지적활동을 자극하고 국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68년 체코에서 동구권 3개국이 참가하여 첫 대회가 개최된 이후 올해로 31회째를 맞고 있다. 한편 7월 14일 대한화학회(회장李大云) 회의실에서 한국대표단과 학회장, 부회장 및 실무이사, 과학기술부 鄭潤국장(기초과학인력국)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金大中대통령 축전 전달식을 가졌다.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金英樸)는 7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학회 창립 40주년(창립일 '59. 7. 25)을 맞이하여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

사에서는 학회장의 개회사와 박병주위원장(창립4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기념사, 학회발전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이 있었다. 이어 황희연교수(충북대 도시공학과)의 "통일에 대비한 통합 국토 정비정책의 방향" 등 2명의 기조연설과 7편의 주제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도시계획의 진로를 모색함으로써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여 바람직한 국토·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여름방학중 풍성한 「과학행사」 개최

국립서울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관장 史相德)에서는 여름방학중에 여러가지 과학체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사고력 및 탐구심을 길러주고자 다채롭고 풍성한 「과학행사」를 개최했다. 과학교육 프로그램 중 「학생과학교실」과 「과학공작교실」은 예년에 비해 새로운 실험테마로 확대 편성·운영하였으며 특히,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생활주변의 과학적 현상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생활과학가족교실」, 과학 꿈나무들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과학교실」을 운영했다. 한편 「'99전국 초·중·고 학생발명 이야기대회 수상작 특별전시회」는 학생들의 수상작(발명품)을 전시하여 학생들의 발명의 꿈을 키우는 한편, 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심지 환경소음·진동 저감대책 세미나 개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회장 李廷洙)는 환경분과의 주관으로 7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강당에서 학회회원, 기업관계자 및 소음진동전문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의 소음 및 진동공해의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 실무적 대책을 강구하는 도심지 환경소음·진동 저감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석현교수(강원대)의 진행으로 개최된 금번 세미나에서는 차승환과장(환경부)의 "환경소음실태와 관리대책", 정성수박사(표준과학연구원)의 "방음벽 개발동향 및 음향특성" 등 4편의 주제논문발표와 참석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㉞